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우리는 많은 것을 잃으며 살아간다. 상실과 몰락은 생명을 품은 모든 존재의 불가결한 실존의 조건 중 하나다. 상실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삶은 많은 것을 잃는 경험 가운데 빛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애착하는 것들은 망각과 소멸, 세월의 파괴 속에서 자취 없이 사라지는데, 이 상실은 달콤하고도 씁쓸하다. 생애에서 가장 큰 상실은 혈연의 사라짐일 테다. 혈연 중 누군가 죽으면 유품들은 소각되거나 증여되고, 소수의 물품만 보존되는 행운을 맞는다. 이마저도 세월이 흐르는 와중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

모든 어머니는 바쁜 천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온다고 했다. 그 천사가 지상에서의 소명을 다하고 떠난 지 몇 해가 지나간다. 올해도 돌아온 어머니 기일을 혼자 조용히 보냈다. 모란과 작약이 피기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사는 일에 치어 차츰 얹어지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어머니와 시골집 거실에 돌아 있던 어느 쓸쓸한 저녁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어머니는 심상한 어조로 죽으면 화장해 달라고 내게 부탁을 했는데, 어머니 죽음을 염두에 두지 못했던 탓에 나는 놀라고

불효자는 읍니다

무언가에 찢린 듯 아팠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슬픔이나 쓸쓸한 자락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 목소리가 하도 답답해서 내 마음은 패는 듯 아팠을 것이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때 나는 사춘기를 맞았다. 자식이 고분고분하지 않았으니 다루기 까다로웠으리라. 모성의 부재 속에서 보낸 유년기 내 무의식에 가라앉은 앙금이 원인이었을 테다. 어머니는 내 어린 입술에 젖을 물리고 배부르게 먹였겠지만 내겐 도무지 그런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 열두어 살 쯤 되었을 때 서울에서 온 한 소년을 만났다. 어머니의 고향 친구의 아들로 우리는 곧 친해졌는데, 그는 제 엄마의 젖이 모자라 내 어머니의 젖을 자주 얻어먹었다는 얘기를 꺼냈다. 처음 듣는 얘기에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나중에는 기분이 아릿해졌다.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누구 잘못도 아니었지만 젖 떼지마자 유기로 인한 슬픔, 즉 스스로조차 인식하지 못한 분노와 고통이 내 무의식 어딘가에 각인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농부의 딸로 자란 어머니는 배움이 많지는 않았으나 아득한 눈빛을 가졌으니 딱히 불우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어머니는 결혼을 한 뒤 도시 변두리를 떠돌며 올라와 최저 생계수준의 삶을 이어가는 동안 굶어먹을 마다하지 않고 가족 부양의 책임을 혼자 짊어졌다. 어머니가 모란과 작약 꽃을 사랑하고, 구불구불 흘러가는 강물과 골짜기를 사랑하셨다, 라고 나는 쓸 수 없다. 어머니는 가난이라는 최저 낙원에서 영혼이 깎이고 고통과 슬픔을 왜 감당해야 하는지 염두도 모른 채 삶을 견뎌냈다, 라고 나는 쓸 수 있을 뿐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서울에서 홀로 보내시는 어머니를 시골에 마련한 거처로 모셨다. 늙어가는 아들과 늙은 어머니 사이에는 어느덧 세월의 더께가 두터워져 그럭저럭 안온했다. 어머니가 텃밭에 작물을 심어 가꾸는 걸 낙으로 삼을 때 나는 서재에서 책이나 꾸러꾸역 읽었다. 아들이 목연수행 하는 라마승이었다면 노모는 착한 보살 같았다. 어머니는 번덕스러운 운명에 시달리다가 경기도 남부의 한 요양병원에서 시한고난하는 생애를 마감했다. 한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으며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는데, 나는 시중 담당했다.

살아가는 내내 가족 생계의 무거움에 짓눌린 채로 가난의 무두질이 거듭되며 착한 본성은 활짝 피지 못한 채로 어머니 영혼은 삭막해지고, 내면의 부드러움과 덕성은 말라붙었을 테다. 시나 음악 같은 예술의 효용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생전의 어머니에게 나는 반항했다. 철부지 아들의 성냄과 옛날에 어머니는 난감했으리라. 더러는 옛날에는 아들에 대한 격정으로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도 있었으리라. 아, 어머니, 불효자는 읍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나의 어머니'라는 시에서 죽은 어머니의 체중이 얼마나 가벼운지 땅을 누르지 않는다, 라고 쓴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노화가 진행되며 몸피가 눈에 띄게 줄고, 죽은 뒤에는 나비보다 꽃잎보다 더 가벼워진다. 내 어머니가 묻힌 땅도 전혀 그 무게를 느끼지 못했으리라. 세월 갈수록 어머니를 겨냥했던 내 거친 분노와 매마름이 불효의 증표였다는 회한에 자꾸만 가슴이 아린 것이다.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3월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가. 올해는 삼일운동이나 일제로부터 해방을 위해 목숨을 버렸던 많은 열사나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내용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대통령의 삼일절 담화가 독립투사들의 후손들과 일본군에 의하여 고통을 겪었던 이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또한 세종사에서 삼일절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아파트에 거는 바람에 마치 그가 삼일절의 주인공인양 언론과 뉴스와 매체들은 그 이야기로 온통 뒤덮었다. 구정물을 맑은 물로 정화하는 것은 힘들지만 맑은 물을 더럽히는 데는 그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있다. 각종 이슈를 요란스럽게 치장해 구설수에 오르도록 하거나, 화제거리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현혹시켜 인지도를 늘리는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즉 소음이냐 잡음을 뜻하는 '노이즈'를 일부터 조성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기법으로 주로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이나 새로 개봉하는 영화 등을 홍보할 때 많이 이용된다.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많은

김복희 열사를 생각하며

조희수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논란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어그로(aggro)'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나무위키에서는 "상대방을 도발해서 상대방에게 적의를 갖게 하여 관심을 끄는 행위나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았으면 한다. 잊지 말고 기억해 내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태극기와 햇불을 들어 울려퍼짐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김복희 열사를 소개하고 싶다.

김복희 열사는 유관순 열사의 이화학당 2년 선배이다. 그녀는 한 교회에서 장모로 임직하여 신앙으로도 모범을 보였다. 김복희 학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은 이화학당에 재학 중 불타올랐다. 일제의 폭정 밑에서 고통과 굶욕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당시 이화학당 학생들은 대부분 17-18세의 한창때 나이였던지라 그들의 반일감정은 극에 달해 있었다. 마침내 김복희 학생이 졸업반이 되던 해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유관순은 1학년이었다.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있던 지 30일째가 되던 3월 31일 저녁, 김복희는 모든 부락민들에게 햇불을 들고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방화산)으로 모이라는 말을 전달했고, 시간이 되어 약 5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그들은 목청껏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곧 일본 순사들이 에워쌌다.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강제 해산당하고 대부분 잡혀갔는데, 김복희와 한연순 선생은 한병들의 눈을 피해 자책을 분간

하기 어려운 산속으로 달아나기는 했지만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져 부상을 당했고 치료 중 한병대의 집요한 수사로 끝내 불잡혀 궁중감옥에 투옥되었다. 김복희 장모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백암리 만세운동'은 이후 전남 유관순의 아우내 독립운동과 더불어 3·1운동사의 중요한 운동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후 이화학당에 다시 들어간 김복희는 이화여자전문학교 보육과에 진학해 공부하다가 졸업했고, 사제리시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강경의 황금정여학교 부속 유치원 설립에 관여하는 한편 강경 만봉여학교의 선생으로도 일했다. 광주 대화정교회의 영명여학교 부속유치원 교사와 영명여학교 시간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 절기 속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개라는 사람들이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여성으로서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타 민족의 계략으로 많은 동족이 죽음의 위기에 몰렸고 그 사실을 안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말을 함으로써 그 위기를 역전시켰다.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성경 말씀 중 에스더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그녀의 다짐의 말이다. 그의 삼촌이 모르드개는 머뭇거리고 있는 그녀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주어 그 일을 이루게 한 인물이다. 그는 에스더서 9장 22절에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선포한다. 페르시아 시대부터 이어진 절기가 현대까지 전해져서 지켜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가. 삼일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社說

전두환 손자 “검은돈” 폭로, 은닉 재산 추정해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학살의 주범인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가족들이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전두환의 차남인 재용 씨 아들 우원 씨는 지난 13일부터 가족사진 등을 담은 게시물을 SNS에 공개하면서 “제 가족들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 찍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에서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전 씨는 또 “아버지(전재용)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 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제 곧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도망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은 아버지인 전제만 씨가 현재 캘리포니아파벨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와이너리는 전문화적인 돈이 드는 만큼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연희동 자택에 있는 스크린골프 시설이라며 공개한 영상에는 이순자 여사로 보이는 여성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전 씨는 특히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에게만 몇 십억 원의 재산이 흘러들어 왔고, 다른 가족들은 이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씨의 폭로를 접한 오월단체 관계자들은 5·18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 참여와 전두환 씨 미납 추징금 환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으나 지난 2021년 922억 원을 미납한 채 사망해 환수가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손자의 폭로를 통해 재산 은닉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끝까지 추적해 미납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 현행법상 한계를 극복하려면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 전 씨 일가 역시 숨겨 놓은 비자금이었다면 스스로 추징금을 납부해 역사 앞에 속죄해야 할 것이다.

아쉬운 반도체...미래차·발사체 성장 동력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광주는 미래 자동차, 전남은 우주발사체 산업이 선정됐다. 하지만 광주·전남이 상생 1호 사업으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또다시 수도권에 집중돼 국가 균형 발전 취지를 무색케 했다.

국토교통부가 그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에 따르면 용인을 포함해 전국 15곳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 미래 자동차 산업은 광산구 빛그린산업단 인근 오운동 일대 338만㎡에 2030년까지 67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광주시는 이 곳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배터리 등 미래차 산업을 집중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남의 우주발사체 산업은 고흡군 봉래면 일대 173만㎡ 부지에 2030년까지 3800억 원을 들여 조성되며, 우주발사체 조립과 부품 제조 전후방 기업·발사체 연구기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고흡군은 국

내 유일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있어 국가산업단지 조성되면 국내 우주발사체 산업 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균형 발전을 우선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모았던 반도체 국가산업단은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로 해 수도권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고흡군과 함께 후보지로 제안한 무안 항공산업단은 탈락한 반면 충청권과 대구·경북에는 국가산업단지 내 곳씩이나 지정돼 아쉬움이 크다.

더욱이 광주·전남의 미래차·우주항공 분야 관련 연구기관이 집적된 충청권 및 대구·경북과 일부 영역이 겹쳐 경쟁력 확보와 차별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후보지 선정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공시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연관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중요한 행사에 깔리던 '레드 카펫'이 앞으로는 삼페인색 카펫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최근 열린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62년 만에 레드 카펫 대신 삼페인 카펫을 깔고 수상자들을 맞았기 때문이다.

중요 행사에 레드 카펫이 깔린 이유는 빨간색이 권위와 명예, 부를 상징하는 색상이므로 여겨져 온 탓이다.

레드 카펫의 기원은 문학작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데, 기원전 458년 그리스 극작가 '아이스킬로스'가 쓴 연극 '아가멤논'에 그 유래가 나온다. 극중 미케네 왕 아가멤논이 트로이전쟁에서 승리한 뒤 귀환할 때, 이미 다른 사람과 눈이 맞은 그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그를 해코지하려 신들의 길을 상징하는 붉은 길 위에 서게 한다. 그러나 아가멤논은 '붉은 길은 오직 신만이 오를 수 있는 길'이라며 거절하는데, 이것이 레드 카펫의 유래라고 한다.

또한 중세 유럽에서 빨간색은 황실에서 주로 사용된 귀족의 색으로 여겨졌다. 색상이 강렬한 탓도 있지만 빨간색 천은 염색 비용이 비싸 서민들은 아예 빨간색 옷을 입을 수도 없었다.

레드 카펫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나폴레옹 1세의 황제 대관식 때였다. 최고 권력의 의미로 레드 카펫을 깔았고, 이후 왕실의 전통이 됐다. 점차 레드 카펫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 원수의 취임식이나 국가 기념일 등 특별한 행사나 격식 있는 행사에서 정부 수반의 공식적인 이동 경로에 깔아 두는 방식으로 이용됐다. 이로 인해 현대에 와서도 정상회담 등에는 레드 카펫을 까는 것이 기본 의전이 됐다. 나아가 고급 식당이나 예식장 등 일반인의 문화에서도 귀빈으로 대접한다는 의미로 레드 카펫을 까는 곳이 생겨났다.

물론 레드 카펫의 가장 유명한 용도는 시상식으로, 스타들이 참여하는 영화제나 가요제에는 무조건 레드 카펫이 깔리고 있다.

아카데미 주최 측은 카펫의 색깔을 바꾼 이유에 대해 "노을이 지는 해변처럼 부드러운 색깔의 카펫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카펫의 색깔이 부드러운 만큼 그 위에 선 배우는 더욱 또렷하게 보인다. 유색 인종에 인색한 아카데미가 삼페인색 카펫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다양한 문화를 바라봐 주길 바란다.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기고

5월의 자성 없이 희망꽃은 피지 않는다



이지현  
5·18부상자동지회 초대 회장  
연극인

1980년 5월 이후 양식 있는 사람들은 43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날의 슬픔을 가슴에 품은 학생들은 가방 속에 책 대신 유인물을 넣고 다녔다. 도서관이 아닌 아스팔트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야만 하는 시절이었다. 학생들뿐만 아니다. 광주에 부채 의식을 느낀 국민들은 5월의 진실 규명과 학살 원흉 처단이란 시대적 과제를 위해 싸웠고, 1987년 6월 항쟁이라는 물길은 만들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를 이뤘다.

이후 40년이 지나도록 민주화는 술한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고 있다. 그 속에서 5월 또한 굳건하게 버텼지만, 항상 5월의 일부 단체가 말쑥이었다. 지난 1994년에는 5·18기념재단 설립의 주도권을 놓고 양분돼 치열하게 대치했다.

2007년엔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에 대한 입장 차로 다시 분열돼 이른바 '5월 전투'를 치러야만 했다. 급기

야 연합군 성격의 광주 시민단체들의 중재 덕분에 중지를 찍었고 옛 전남도청은 원형 보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분열·분란의 중심에는 항상 주목받 공동체가 자 대동 정신의 5월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이 있었다. 올해도 이러한 움직임이 다시금 나타났다. 2023년 2월 19일 특전사와의 '대국민 기간쇼'가 바로 그것이다. 가해자인 특전사의 진정 어린 사죄와 진상 규명에 대한 노력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무작정 용서와 화해만을 요구하는 또 다른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1980년 이후 오월을 지지해 준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논의 없이 대국민 공동 선언을 기획한 두 단체가 송고한 국립 5·18민주묘지를 군사 작전하듯 기습 참배해 반축을 샀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유족회는 이들과 같이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지켜보던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23일 5·18부상자회와 5·18공모자회의 행태를 응징하기 위해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민단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두 단체에 사죄와 공동 선언 폐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두 단체는 이조차 거절하고 징계를 의식해 '43주년 5·18 기념행사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행사위원회는 5월 정신을 훼손한 두 단체를 제명기로 했으나 두 단체는 적반하장으로 행사위원회 해체를 요구하

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사면초가에 몰린 두 단체는 지난 13일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 위원회에서 조사받은 적 있는 계엄군 출신 인사를 초청해 '고백과 증언' 행사를 진행하며 하여 반전을 꾀했다. 모양새는 좋았으나 과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언을 되풀이하는 데 그쳐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용서와 화해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꼴이다.

부상자회의 입장에 반대하는 유공자들이 세운 '5월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부상자회 총회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총회 금지 가져본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작년 총회 선거 당시 사망자 200여 명이 선거인 명부에 포함된 점 등이 신청의 배경이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불투명한 회계 등에 대한 비공개, 비민주적 운영, 장기 집권을 위한 정관 개정, 20억 원 차용에 대한 승인 등에 대한 의혹도 이번 가져본 신청을 계기로 비대위가 밝혀내야 할 문제다.

5월은 민주주의 꽃이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이며, 역사의 교훈이자 스승이다. 이를 사유화하려는 사람들은 역사의 철퇴를 면치 못할 것이다. 5월 단체의 자성과 시민들의 애정 어린 채찍질, 그리고 사랑을 부탁드린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업 무 국 220-0551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FAX 222-0195) (FAX 222-0195)	
전 남 본 부 220-068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